

與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벌였다”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벌였다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국정조사 외에도 청문회,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의 칼로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 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며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대북송금(사건)을 들고 나왔다”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둔갑시켰다. 많은 보도를 통해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을 낱알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 법 앞에 그런 범죄자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야당 탄압·정적 제거, **李 죽이려… 단죄할 시점**
“국가 범죄 행위… 명백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
“**法** 검찰편 서서 대선 개입… 檢 표적·숙주 수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서는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다”며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했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

한 명백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며 “조작 수사,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알이 밝혀내겠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 감찰과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이어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준호·이건태·김기표·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군사 독재는 총칼을 사용했지만 검찰 독재는 조작 기

소를 사용했다”며 “법원은 정치 검찰의 기소를 걸러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 검찰 편에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조작 기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며 “전 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표적 수사였고, 약점을 잡아 협박해 협조자들에게 의존한 수사였다”고 했다.

또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숙주 수사였고, 증거와 범리를 은폐·조작·왜곡한 조작 기소였다”며 “오늘 정치 검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정치 검찰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까지 갈 길 남아” “반성·책임 바탕으로 정의로운 통합 이뤄내야” 청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치권 모두가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 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깨끗하게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이고 또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야당에 재차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채광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신중적으로 동원해 달라.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했다.

최근 수출 호조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달 매일수출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

국힘 내부 ‘尹 절연론’… “尹과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계엄의 바다 건너야”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과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풀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선거에서) 완패했던 악몽이 있는데 지금 여론의 추이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 만약 오늘 선거라면 우리는 완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더 넓은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정권을 만드는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할 때”라며 “그걸 못하면 국민의힘이 해산하고라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라

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김제섭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여계가 아니라 윤네버가 돼야 한다”며 “진실되게 사과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로 가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윤석열과 단절의 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 계엄 사과문에 자신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처럼 됐을 때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않은 중인 의원들도 꽤 많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것은 당 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메시지에 대해 “계엄이 그렇게 정당했다면 계엄에 책임이 없다고 부하들에게 법정에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뉴스1

김 총리 “광주 진상규명 외치다 투옥… 광주는 제 정신적 고향” 광주시민 300여명 대상 국정설명회 개최… 전국 순회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광역시 방문에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총리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 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다.

김 총리는 또한 지난해 12월 4일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점을 연관지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준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빛”이라고 밝혔다.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진행했다. K-국정설명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인턴과 신입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발을 댄 바 있다. 총리실은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중심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임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국정설명회는 오는 7일에는 인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19일에는 전주에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뉴스1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